

(주)로템 임직원 오찬 감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일터를 방문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기술하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일류 연구소에서 만들어 내는 이론적으로 아주 정밀한 최고의 기술을 먼저 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올리고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물론 그 연구소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작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다. 고도의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 좀 더 완벽하게 일하는 방법을 머리로 짜내고 토론하고 이렇게 만드는 데서 큰 경쟁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이름이 그렇게 높이 나지 않더라도 나라를 살려 나가는 일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답에 두 번째 감동받은 것은요. 박수를 여러분이 길게 세계 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뜻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신 우리 장

대성 연구원께서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짧게 소개해주셨는데. 참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말 감동 받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한, 러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유럽까지 여러분이 만든 전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북한 철도 건설이나 차량 보급에 외상공급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우리 한국이 돈을 많이 벌고 중심이 돼서 여러 나라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모으셔서 함께 투자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함께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가닥을 잡으면 끝에 가 선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돕고 또 철도도 건설하고 전기도 공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 또 구조조정의 고통 이런 과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유종철 직장님 정말 그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장의 10%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의 지원 정도로 정부가 우리가 하는 일을 상당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 사장님 말씀 듣고 우리 조합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발과정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시장을 경영함으로써 기업이 그야말로 견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수주하는 물건이 외국에 내보내는 것보다 가격이 너무 낮다거나 돈은 적게 주면서 품질만 좋은 거 내놓으라고 해서 결국 기업이 어려운 부담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시정이 될 방안은 저희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장께서도 이거 꼭 좀 챙기셔서요. 제대로 주고 좋은 물건 받아야지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열차 그리고 가장 안전한 열차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개발하고 납품 준비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서 역시 하루하루 세상은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가 불행을 당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는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한 발 나아갈 줄 아는 슬기로운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과정에 여러분의 땀과 노고가 배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의 비전이 뭐냐 그거 그렇습니다. (웃음)

꿈입니다. 꿈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 내놔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 이 제도는 틀렸다. 말이 많은데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또 제도를 개선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황성대 직장도 계십니다만.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창조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혼자서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서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쟁그리고 서로 만나서는 될 일도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분 좋고 서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낙관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내놓을 만한 성공 이것이 여러분들 직장의 노사 화합을 통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토론과 협동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낸 그런 밝은 분위기가 크게 기여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물어보지 마시고 당부할 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제가 한 수 배워가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웃음시다. 웃음시다. (박수)

몇 달 뒤에도 제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선 법적으로 판단하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결론이 다를 거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지만 그러나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람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을 겪더군요. 곤충은 허물을 벗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회는 개혁이 될 때, 변화가 생길 때 진통을 겪습니다. 전 그 진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괴롭기만 하고, 그저 소모적이기만 한 진통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진통을 내일의 도약의 밑거름으로, 약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따듯한 박수를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겪고 있는 이 고통 현장에서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하나,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서,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